

ISSN 1599-7863

# 박물관사람들

2023년 가을 · 82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발행일 2023년 9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5  
 기획 이재범 편집회원 강현자·계윤애·김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김운 디자인 동방문화 (02)2275-1913, 1924  
 전자우편 fnmk1974@fnmk.org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2023년 가을 82호

### 기획 / 디지털 실감 영상관1

- 04 | 보고 듣고 노닌다
- 08 | 믹스 앤 매치 Mix & Match
- 12 | 취하고 취하여

### 전시실 산책

- 16 | 거장의 숨결을 느끼다
- 20 | 변함없이 이어질 이야기를 위하여

### 회원마당

- 24 | 20세기 익선동에게

### 소재구의 도시 이야기

- 28 | 정한의 백제 왕도

### 박물관회 소식

- 32 | 2023년도 제13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고

### 숨은전시

- 33 | 엄마 생각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34 | 기부회원 명단



〈김홍도필 파상군선도〉, 국립중앙박물관

# 보고 듣고 노닌다



해와 달이 비치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  
 끝없이 펼쳐진 강과 산. 이곳에 그들이 있습니다.

‘얼렁얼 상사디야~’ 선소리꾼이 메기는 소리가 흥겹다. 세 벽면이 곡선으로 연결된 디지털 실감 영상관 ㄱ자형 스크린에 우리 춤사위와 강, 산, 무, 진, 도, 글자가 멋들어지게 놓고 있다. 세로로 선 강산무진도 글자가 연기처럼 사라지면 두루마리 횡권이 펼쳐진다.

그림 위로 삶의 또 다른 이름처럼 길이 나고, 사람들의 행보가 활기차다. 스크린 전면에는 길 떠나는 아버지와 아쉽게 배웅하는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그림 속 세상이 끝없이 펼쳐지자 새처럼 날아다니는 아이들의 가벼운 몸짓이 무대를 휘감는다. 그림과 영상과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세상이다. 여기에 이날치 밴드 장영규 감독이 참여한 음악이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준다. 길 떠난 아버지가 하루를 보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주요 이야기와 더불어 화면 여기저기에서 소소한 에피소드

들이 동시에 펼쳐진다. 열린 공간에서 뛰며 놀며 실감 영상을 즐기는 아이들의 풍경 너머 천천히 다가오는 마을과 사람과 자연에 이끌려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길이가 856cm, 5폭의 비단을 잇댄 화폭에 거대한 자연과 그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다채롭게 펼쳐진다.

두루마리 오른쪽에서 시작되는 <강산무진도>의 첫 번째 화폭은 형상 없는 여백으로 시작하고, 안개 속에 비치듯 솟아 오른 언덕 위 연녹색 고송과 그림의 안내자처럼 언덕 아래 길 떠나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 이들을 따라가면 건축물들이 보이고 고깃배가 나타나며 하늘은 강이 되고, 화면 위로는 희미하게 마을도 보인다. 부드러운 강의 흐름처럼 강변 마을은 평온해 보인다.

다시 높아지는 산세, 깎아 세운 듯 가파른 두 절벽 사이에 낮은 산이 보이고, 절벽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연결하는 도르래가 등장한다. 그림 전체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공간이다. 잘생긴 소나무 두 그루와 느릿느릿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들과 대비된 웅지 모를 긴장감이 감돈다.

에서 더 나아가면 거대한 산이 우뚝 막아서고, 깊은 산속에 시원한 폭포수 줄기가 장관이다. 험준한 기운을 내뿜는 산세는 거칠고 도드라지고 험상



긋으나, 계곡 사이를 부지런히 건너는 행렬이 보인다. 몇 개의 다리를 건너고 마침내 성벽을 두른 항구에 이르면, 항구 마을이 아스라이 멀어지며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왼쪽으로부터 그림이 서서히 말아지고 두루마리 <강산무진도>가 저만큼 멀어져 간다.

영상 속 <강산무진도>에 더해진 궁금증으로 구입한 그림첩을 펼쳐본다. 그림 맨 끝에 ‘이인문문욱도인야李寅文文郁道人也’ 도장으로 ‘문욱’이란 자를 쓰고 ‘고송유수관도인古松流水觀道人’을 호로 가진 이인문이라 말하고 있다. 그는 18세기 후반~19세기 초 궁중화원으로 동갑내기 김홍도와 더불어 왕을 모시던 뛰어난 화사畫師이다. 그동안 어설피 알고 있던 대가의 그림을 직접 손에 들고 낙관을 확인하니 화사의 손길인 양 떨린다.



산의 겉면에 거친 감촉을 만들고(피마준披麻皴), 넓은 면은 붓을 뉘어 직각으로 나타내고(절대준折帶皴), 변화무쌍한 산과 바위를 도깨비 얼굴처럼 묘사하는(귀면준鬼面皴) 화려한 준법을 돋보기로 자세히 살피니, 정조 임금이 차비대령화원 중 첫 손을 꼽은 이유를 알 것 같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격조 있는 산수 미감과 섬세한 필치가 느껴진다.

더욱이 그림을 높은 곳에서 새의 눈으로 내려다보게 하거나 산봉우리와 폭포처럼 정면에서 바라보게도 하고, 당황할 만큼 가까이에 기이한 암산을 데려오는 작가의 시선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더불어 연녹색, 주황색, 녹색의 감각적인 색채를 얹게 채색하여 가을이라는 계절도 엮어둔다.



돋보기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산수 풍광이란 이런 것이구나! 감탄할 틈도 없이 굵이굵이 이어진 강산 깊숙한 곳에 숨은 그림처럼 아주 작고 세밀한 인물들이 다채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찾는 재미가 있다.

강변마을에는 교자 탄 사람의 행렬과 나무 아래 한가롭게 쉬는 사람들, 물길을 누비며 나아가는 조운선, 포구에 정박한 배에서 짐을 내리는 짐꾼들, 말 타고 가는 인물의 행렬과 옆에서 여유롭게 수레를 끄는 사람, 모두 평화로워 보인다. 산중에 높고 날렵한 누각과 멋진 기와집을 짓고, 특히 산봉우리 아래로 넓은 터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절벽 위 마을과 도르래로 물류를 수송하는 현장은 활기가 넘친다.

넙보기 힘든 험산에 누가 닦았는지 잘 닦인 잔도도 있다. 오르막길에 괴나리봇짐을 메고 발걸음이 바쁜 나그네와 말과 씨름하는 사람, 내리막을 앞서 유유히 내려가는 말 탄 사람들 뒤로 바퀴가 달린 수레를 움직이는 사람과 어깨에 들것을 짊어진 사람들. 항구마을에 둥글게 굴러가는 수차까지.

그림 속 인물들을 따라가 보면 <강산무진도>에는 계급 사회의 질서가 분명하지 않다. 상류층 인물의 행렬 주변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자유롭다. 잔도에는 피맛골이 없어 일반 백성이 편하게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림 속 세상은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공존이 이루어진다.



이인문, <강산무진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절벽을 오르내리는 도르래

18세기 중국을 여행하고 온 지식인들은 북경에 이고 진 사람이 없이 손수레로 밀거나 어깨에 거는 들것으로 짐을 옮기는 운송 수단을 칭송했다. <강산무진도>는 앞 수레가 다져놓은 길을 뒤 수레가 따라가는 '전철前轍'을 밟는 잘 닦인 길이 마을뿐만 아니라 잔도에도 있어 들것과 수레가 널리 사용되는 이상적인 일상, 태평성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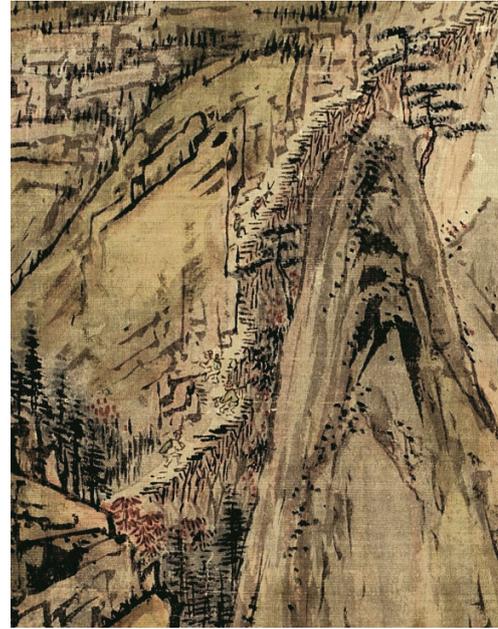
조선 후기를 살아낸 이인문은 변화하는 세상의 상징들을 그림에 개성적으로 묘사하여 극적인 진풍경을 선사한다. 그는 누구를 위해 이처럼 대자연과 번영하는 인간 사회가 잘 어우러진 세상을 그려냈을까?

그림을 그린 18세기는 대동법의 확대 시행으로 나라에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자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동미가 바닷길과 한강의 포구를 통해 들어와 물류량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또한 필요한 물품을 사고파는 시장이 발달하고,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민영 수공업도 활발해졌다. 저것거리

에 다양한 물화가 넘쳐나니, 정조 임금은 그런 한양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1792년 한양의 저잣거리 풍물을 담은 '성시전도(城市全圖)'를 그리게 하고 그 기념으로 규장각 관리들에게 시 한 편씩을 쓰도록 명을 내린다.

“과인의 정치가 요순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꿈공이 생각해 보면 초심을 잃지는 않은 것 같다.” 규장각 검교직각 남공철과 정조가 나눈 대화를 보면 “우리나라 사방 6000리에 산도, 바다도 있어 수레와 배로 요동이나 심양, 중국이나 왜국 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 자화자찬 속에 새로운 과학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변화의 의지도 함께 담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꿈꾸는 이상 세계와 일상의 태평성대를 그림으로 주문하는 위경자의 의도와 이인문의 상상력이 합체된 결과물이 <강산무진도> 아닐까?



산도를 오르는 사람들



정작 그림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찍힌 '김정희인(金正喜印)' 등 추사의 낙관 다섯은 추사가 그림을 감상하고 수장했음을 말해준다.

‘강과 산이 다함이 없고, 그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삶도 끝이 없다. 지금까지도.’

휘몰아치는 강산과 더불어 평온한 저마다의 삶을 찾아가는 우리네 일상도 계속될 것이다.

<강산무진도>의 새로운 버전, 이 시대 열린 ‘강산무진’은 어떻게 그려질까?

김훈 작가의 『강산무진』을 읽으며 다시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산들이 잿아지는 골짜기마다 마을이 들어섰고, 마을이 끝나는 곳에서 들이 펼쳐졌고, 들판 가장자리에서 다시 산맥이 일어섰다. 윤곽선을 풀어헤친 산맥은 연기처럼 엉키고 또 흩어지면서 허공 속을 흘러갔고, 기진해서 소멸해가는 산맥들이 하늘 속으로 빨려 드는 잔영 너머에서 바다는 시작되고 있었다.

바다가 뿜어내는 안개가 먼 잔산(殘山)들의 밑동을 휘감았고, 그 안개 속에는 내가 모르는 시간의 입자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번창했다. 🌫️

정은정 회원



# Mix & M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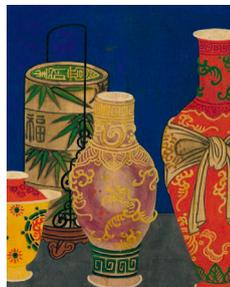
## 믹스 앤 매치

우리의 문화유산이 디지털 기술과 만났습니다. 전시실 벽면이 빛의 그림판입니다. 대형 영상에 화려한 문양의 책가도 (포갑)으로 감싼 책 더미, 어깨에 솔을 둘러 화사하게 치장한 화병들(포복식 도자기), 극소수 얼리어답터가 전유했을 자명종과 회중시계 등이 나무 선반 가득입니다.

물 건너 온 당시의 사치품들이 '색색을 입었다, 벗었다' 점멸합니다.

그뿐인가요, 태블릿 pc를 이용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로 책장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과거를 눈앞으로 소환해 현재와 이어주는 디지털 실감 영상 <꿈을 담은 서재, 책가도>는 환상의 세계입니다.

<책가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 플렉스Flex in 조선, 궁중 책가도

책가란 ‘서가’ 또는 ‘서재’란 뜻으로, 책가도는 서재가 있는 그림입니다. 책장 선반에 주인의 취향을 반영한 책과 여러 기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조선 판 정물화입니다.

책가도는 18세기 후반 처음 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독한 애서가이자 독서광이었던 정조와 관계가 깊습니다.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서실에 들어가 책을 어루만지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장자는 말하였다.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이 그림으로 인해 알게 되었다.”

본래 궁실을 장식했던 책가도는 김홍도, 장한중 등 당대 내로라하는 궁중 화원들이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궁중 책가도는 규모가 큰 10폭의 연폭 병풍으로, 한 폭만 떼어 걸어도 손색없을 만큼 각 폭은 독립적인 완성도를 갖췄습니다. 기본적으로 좌우대칭 구도에 책 쌓임과 기물 놓임이 다채롭고, 공간의 채움과 비움은 조화롭고 안정적입니다.

원색의 향연에 투시도법과 명암법이 정확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숨을 삼킬 만큼 강렬했던 궁중 책가도의 첫 느낌은 우리 것이 아닌 서양화라는 선부른 판단과 함께였습니다.

18세기 조선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북학이 대두하고 외교사절의 교류와 상업적 거래가 활발해져 다양한 상품이 조선에 수입되었습니다. 책가도에 서화 골동 취미와 서양적인 시대감각이 가미된 이유입니다.

우리의 책가도는 중국의 ‘다보각경’에서 유래합니다. 청대 황실에서 완상물을 보관하는 작은 진열장(장식장)을 ‘다보격’이라 했는데, 밖으로 나설 때 소중한 물건을 넣었던 작은 상자에서 연유한답니다. 다보각이란 ‘많은 보물의 시렁’이라는 의미로, 기물을 놓는 선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관, 전시 형식은 16~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갤러리나 뮤지엄의 시원적 형태로 독일의 ‘쿤스트캄머(예술의 방)’와 ‘분더캄머(호기심의 방)’나 영어로 ‘Cabinet of Curiosity’가 이를 가리킵니다.



<책거리도> 부분, 국립민속박물관



<책가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책가도 6폭 병풍〉 부분, 국립민속박물관



〈책가도〉 부분, 서울역사박물관

책가도에는 선반이 휘어질 듯 오로지 책만 그득그득한 그림도 있습니다. 선비가 대접받는 사회에서 출세를 담보했던 서책이 학창시절의 공부 압박감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일월 오봉도 대신 정조를 ‘호위한’ 병풍도 그려했을지 모릅니다. 그저 흐뭇하였을 정조와는 달리 시험이 코앞인 학생처럼 긴장하게 됩니다.

책만 뽐뽐한 책가도는 중간중간 ‘꼬리를 살랑거리는’, 책갑에서 책을 손쉽게 빼내는 용도의 끈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자로 그은 듯 반듯한 직선들의 조합으로 표현됩니다. 책의 단면에는 가늘고 예리한 가로선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종이가 금속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책장을 넘기다 손가락을 베이는 것 아닌가 하면서, 수평과 수직의 선과 책갑의 격자구조가 만들어내는 ‘차갑도록 단호한’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

### 만물상萬物相 in 조선, 책거리

책가도와 함께 많이 쓰이는 말이 책거리입니다. 책가도의 영어식 표기 ‘Books & Things’에서 ‘things’에 해당하는 ‘거

리’는 순수한 우리말로 일거리, 구경거리, 이야깃거리처럼 복수형의 의미로, 한자 ‘巨里’는 이두식 표기일 뿐입니다.

구별하자면 서가에 책과 물건들이 배열된 것이 ‘책가도’고, 서가가 없는 경우 책과 기물의 배치 방법에 따라서 나열식, 탁자식, 밀집식 책거리로 나눕니다. 또는 궁중 책가도는 눈속임 유형(트롱프뢰유)으로, 책거리는 독립 유형이나 탁상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세분화는 책가도의 폭넓은 인기를 방증합니다. 궁궐을 벗어난 책가도는 민간으로 퍼졌습니다. 바탕은 종이 가 비단을 대신하고, 폭 수는 줄고, 병풍의 크기는 궁중화의 1/2~1/4로 작아집니다. 기물의 가짓수나 크기를 줄이지 않고, 본래의 존재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묘책이 등장합니다. 책장을 치우고 기물을 일렬로 세우거나, 탁자나 서안에 테트리스처럼 기물을 쌓아 올립니다. 이도 여의치 않으면 기물을 덩어리지게 뭉쳐 버립니다.

반닫이 위에는 이불, 요, 베개를 얹고, 선반에는 세간과 잡동사니를 보자기로 싸서 올려놓았던 오래전 우리네 살림살이와 닮아 있습니다.



<책가도 8폭 병풍> 부분, 국립민속박물관

민화 책거리에는 중국 물건을 선호한 사대부들과는 다른 백성들의 삶과 취향이 적극 투영됩니다. 단색유 의 채색 도자기와 표면에 빙결이 가득한 백자병 같은 수입품 대신 청화 백자가, 표지가 튼튼해 책갑이 필요 없는 조선의 서책이 놓여집니다. 또한 왕성한 생명력과 충만한 영기靈氣를 발산하는 정물로 수박, 석류, 포도, 가지 등과 용, 기린 같은 상상의 동물들이 그려집니다.

상상력에 날개가 더해진 민화 책거리는 때로는 초현실주의까지 다룹니다. 사물들은 무중력 상태인 듯 떠다니다 시령을 통과하고, 심지어 연못까지 시령에 올려집니다. 사물의 객관적 크기는 개의치 않고 기물보다 작게 인물을 그려냅니다. 한 화면에 시점이 여럿이고, 동시에 역원근법까지 표현되어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리 옛 그림 가운데 책거리만큼 물건이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민화 책거리는 가히 다다익선의 실사판입니다. 길상적 요소가 다분한 책거리는 더 이상 문방청완의 장식용 회화가 아닙니다. 행복, 다산, 출세를 소망하는 우리네 삶의 자화상입니다.

출발점은 개인의 수집 욕구, 재력가의 호사 취미가 낳은 ‘유럽발 컬렉션’이지만 중국을 거쳐 조선에 들어와서는 세계의 정물화 가운데 유일하게 책을 특화한 그림으로 안착한 우리의 책거리. 책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 추상성을 포용해 내고, 소재와 구성에서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은 파격의 연속입니다.

민화 책거리에 감동한 야나기 무네요시는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다... 무명의 조선 민화를 보게 될 것이다... 민화에는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과 ‘불가사의’란 이질적인 두 단어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수식으로 느껴집니다.

꿈과 기술, 어제와 오늘을 ‘섞어 빛은’ 영상 앞에서 책가도의 내일을 그려봅니다. 무엇이 섞이고 또 섞여 경이롭게 새롭을 아름다움을 만들지 궁금합니다. 🌟

문정원 회원



여동빈



이철괴(철괴리)



종리권(한종리)과 두목지



마고와 하선고



장과로



태상노군과 윤희와 동방삭

# 醉 취하고 취하여 取

성룡 주연 영화 <취권(1978)>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 황비홍이 책의 첫 장을 넘기자 서생 차림에 장검을 찬 신선 그림이 나온다. “여동빈呂洞賓, 힘이 장사인 술고래.”

그러고선 술잔을 든 손 모양을 하며 취권 동작을 연습한다. 이후로 계속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을 연마한다.

다음 장을 넘기자 목발을 짚고 호리병을 든 거지 차림을 한 신선이다. “철괴리鐵拐李, 괴력의 오른발을 가진 술 취한 앓은뱅이.”

그다음엔 쌍상투를 들고 파초선을 손에 든 뚱뚱한 신선 그림. “한종리漢鍾離, 술 단지를 든 술고래.”

다음 장은 꽃바구니를 든 성별 미상의 신선. “남채화藍采和, 허리 공격의 달인인 술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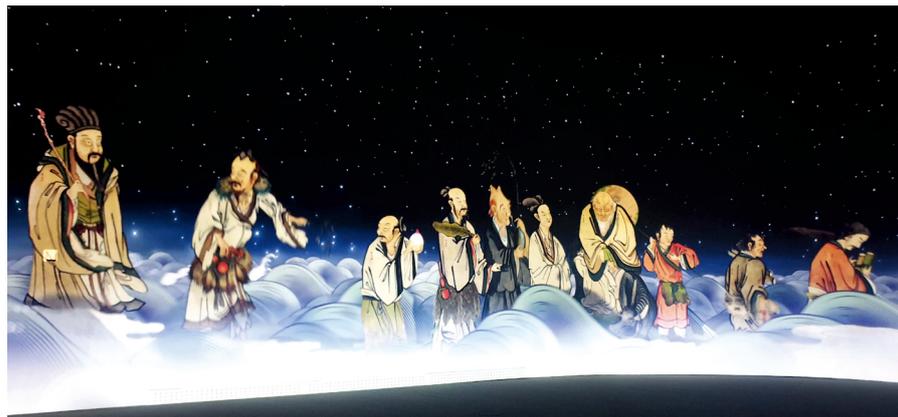
그다음엔 대나무로 된 악기를 들고 나귀에 거꾸로 탄 신선. “장과로張果老, 이중 발차기의 대가인 술고래.”

그리고 관복 차림에 옥패를 든 신선 그림이다. “조국구曹國舅, 목 조르기의 대가인 술고래.”

다음은 손에 피리를 든 신선이 나온다. “한상자韓湘子, 손목이 살인 무기인 피리 연주가.”

마지막 장을 넘기자 연꽃잎을 든 여자 신선이 그려져 있다. “하선고何仙姑, 술에 취해 요염하게 걷는 여인.”

원래는 옛날 영화를 보려던 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1층 디지털 실감 영상관 1의 파노라마 영상을 다 섭렵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 《금강산에 오르다》와 《강산에 펼친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그리고 《꿈을 담은 서재, 책가도》는 매일 볼 수 있지



신선들의 행렬 장면(맨 왼쪽이 동왕공)



반도원 장면

만, 서왕모의 잔치를 묘사한 《신선들의 잔치》와 저승 시왕과 지옥을 다룬 《영혼의 여정, 아득한 윤회의 길을 걷다》, 정조의 화성 행차를 그린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는 돌아가면서 상영하기 때문에 최소 세 번을 방문해야 다 볼 수 있다. 그중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신선들의 잔치》였다.

복숭아나무에 꽃이 피고 3000년 만에 복숭아가 잔뜩 열린 영상 다음에 김홍도가 그린 <파상군선도波上群仙圖>가 펼쳐지더니 그림 속 신선이 그림 밖으로 나와 넘실대는 파도를 건넌다. 서왕모의 반도연蟠桃宴에 가는 중이다. 봉황이 군무를 추고 흰 사슴이 뛰어다니는 숲에 신선들의 모습이 하나, 둘 나타나더니 어느 순간 신선들은 모두 연회장에 들어와 있다. 취권의 여덟 신선들이 술고래가 된 이유는 여기서 거나하게 술을 들이켰기 때문이다. 다들 정신 차리고 복숭아는 잘 받아 챙겼는지 모르겠다.

그림 속 총 40명 중 29명 정도가 신선인 것 같은데, 누가 누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당시 사람들은 척 보면 바로 구분할 수 있었을까? 확대해서 보면 후대에 누군가가 주요 인물들의 어깨에 붉은색으로 이름을 써놨는데, 도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 궁금한 마음에 두서없이 이들의 정체를 캐다가 본의 아니게 영화 속 취팔선醉八仙을 발견한 것이다. 도교에 수많은 신과 신선들이 있지만, 실존 인물에 기반을 둔 이들 여덟 신선이 유독 인기가 좋았기에 따로 팔선八仙이라 불렀다.

일단 8명은 식별했으니 또 누가 있는지 알아본다. 아이들

그룹에서 센터가 가장 인기가 높듯이 웬지 가운데에 인기 많은 신선이 있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소를 타고 있는 태상노군, 즉 노자와 함곡관에서 그가 불러주는 도덕경을 받아 적었던 윤희, 그리고 훗친 복숭아를 손에 든 동방삭이 4쪽에 있다. 그리고 5폭엔 등에 칼을 차고 버드나무의 정령인 유자선을 데리고 있는, 팔선 중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여동빈이다. 그렇게 책과 인터넷을 뒤져서 마고, 이백, 황초평, 유해성 등 제법 알아내긴 했지만,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있어서 아직은 미완이다.

서왕모의 잔치를 묘사한 다른 작품으로는 <요지연도瑤池宴圖>가 있다. 서왕모가 곤륜산의 요지瑤池라는 연못가에서 연회를 열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반도연이 아니라 여덟마리의 준마를 타고 서쪽을 순방 중이던 주 Zhou나라 목왕穆王을 초대하여 연 것이다. 목왕은 수도인 낙읍(낙양)을 자주 떠나 건웅을 정벌하기도 하고 지방 순행도 많이 다녔는데, 한번은 서쪽으로 가서는 한동안 감감무소식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그가 서왕모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나눴다는 이야기가 생겨났다.

언제부턴가 조선에서 그린 요지연도에 군선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신선들이 보통의 반도연이 아닌 서왕모와 목왕의 연회에 가게 되는 거다. 게다가 초대 손님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아예 종교를 초월하여 석가모니와 사천왕, 사자를 탄 문수보살과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 같은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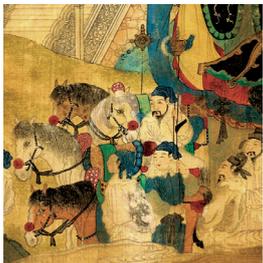
석가모니와 사천왕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산신령처럼 보이는 신선



목왕의 팔준마



반도연 장면

의 신들은 물론이고, 어떤 그림에선 그 행색과 호랑이를 탄 것으로 보아 조선의 산신령인 것 같은 손님도 연회를 향해 가고 있다.

문제는 김홍도의 <파상군선도>에서 동왕공東王公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여자 신선들을 관장하는 서왕모西王母에 대응하여 동왕부東王夫라고도 불리우면서 남자 신선들을 관장하는데, 이 둘을 부부로 여기는 이야기들이 많다. 한편으론 서왕모와 옥황상제를 짝지은 설 정도 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인간들의 선호도에 따라 신들의 서열이 바뀌었다. 한때 최고 존엄이었던 태상노군이 세월이 흘러 원시천존에게 밀려나고, 원시천존은 그 자리를 옥황상제에게 내준 것처럼 말이다. 이런 중에 몇 천 년 동안 세계의 최고위직을 굳건히 지켜온 서왕모는 정말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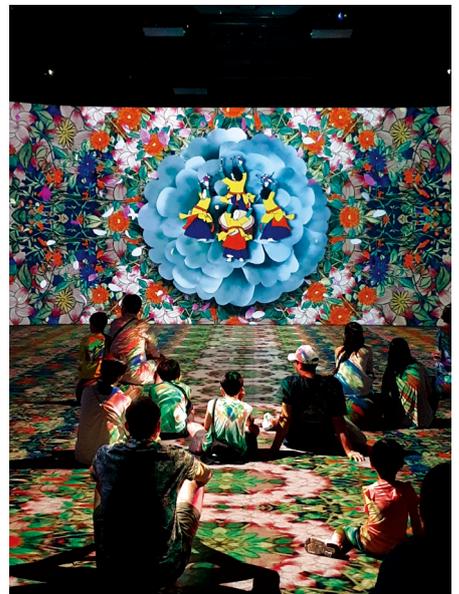
그런데 서왕모가 아무리 권력이 세더라도 그렇지 새 애인을 초대한 잔치에 따로 사는 남편 또는 전 남편이 간다고? 갑자기 흥미로워졌다. 삼각관계의 삼자대면이 이뤄지는가? 아니 아니, 그래도 주빈석에 앉아 있는 남자가 목왕이 아니라 동왕공인 요지연도가 있을지도 모



작자 미상, <경묘조왕세자책례계병>, 국립중앙박물관

르니 진정하자. 하지만 찾아낸 그림마다 팔준마가 그려져 있으니 그 남자는 목왕이 맞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요지연도>의 신선들 중에 원유관 비슷한 것을 쓴 동왕공으로 추측되는 신선이 있나 찾아보니 아쉽게도, 아니 다행히도 없다. 아하, 막장 드라마를 막아낸 것은 현명한 조선의 화원들이었다. 그럼 동왕공이 연회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영상은 어떡하나? 역시나 현명한 영상제작자는 이 연회를 목왕이 없는 보통의 반도연으로 설정하여 연회에 도착한 동왕공을 서왕모와 나란히 앉게 했다.

행여나 <요지연도>가 막장이 되면 난감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은 그것이 계병稷屏, 즉 왕세자 책봉이나 원자 탄생을 기념하는 국가 행사용 기념 병풍의 주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 속 주빈主賓이 신이 아니라 인간세계의 통치자, 그것도 당시 사대부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주나라의 군주인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군선도>가 들어가게 된 이유도 가로로 긴 대형 병풍의 공간을 다채롭게 채우는 동시에 종교와 세계관과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길하고 장수하는 존재들을 총집합시키려는 의도 같다. 그렇게도 길한 그림이다 보니 광통교 그림 가게에서 취급할 정도로 민간으로도 퍼져나갔고, 민화로도 많이 제작되었다. 대표적인 <요지연도> 중에 정조가 사망하기 불과 네 달 전에 훗날 순조가 되는 세자의 책봉례를 위해 제작한 것이 있다. 그걸 보면서 그로부터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린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영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장엄한 행렬, 흐드러진 꽃과 나무끼는 춤사위, 삼삼오오 모여들어 즐기는 백성들, 황금갑옷을 입고 군사들을 호령하던 정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불과 5년 후에 임금이 어린 세자를 남겨놓고 떠날 것이고, 나라는 <요지연도>가 상징하는 태평성대로부터 점점 멀어질 걸 상상조차 못 했을 거다.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영상



《영혼의 여정, 아득한 윤회의 길을 걷다》 영상

다가올 현실이 그들을 실망시킬지라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옛사람들은 지극히 현세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도교와 신선 사상이 그들에게 참 잘 맞았을 것 같은데도, 불교처럼 지배 종교가 되거나 유학처럼 국가이념이 된 적은 없다. 대신 그 모든 곳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택한 것처럼 보인다. 그중 하나가 《영혼의 여정, 아득한 윤회의 길을 걷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저승이다.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가 중국을 통과하면서 도가의 지옥을 다스리는 시왕十王 개념이 합쳐진 결과이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유교의식인 삼우제나 윤회와 관련있는 의식인 49재에 해당하는 날 추도미사나 예배를 드리는 집을 보는 기분이다. 뭐 어쨌든. 이왕이면 다홍치마, 좋은 게 좋은 거, 모든 좋은 것을 취해해보자.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마침표를 찍어본다. 🐼

서유미 회원



## 거장의 숨결을 느끼다

###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2023년, 달라진 일상은 매주 서울 방문이다. 새벽 5시 14분에 창원중앙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타면 8시쯤 서울역에 도착한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체험을 하고 강의 시작 전 도착해서 자료를 한 번 더 살피면서 수업 준비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수업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는 즐거움이 컸다. 오고 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서울에 머무는 2~3일 동안 사람도 더 만나고 뭐라도 더 봐야 할 것 같았다. 수업 듣는 분들이랑 종종 미술관에 갔지만 역시 미술관에는 혼자 가는 맛이 최고다. 미술관, 전시장 원 없이 갔던 것이 상반기 제일 잘한 일이다. 서울에서 진행하는 굵직한 미술 전시는 거의 다 봤다.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무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넉 달 동안 이어지는 전시다. 올해 3월 15일까지 열렸던 《함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 빈 미술사박물관 특별전》에 이어 연타석 흥론을 날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전시였다.

남들보다 먼저 보고 싶어, 6월 2일 전시 첫날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작품 감상하기 좋은 관객 밀도였다. 온 국민이 미술애호가가 되어버린 지금, 전시의 질을 좌우하는 무시 못 할 요소가 전시장의 혼잡함이다. 일반 전시의 절반 밖에 안 되는 52점이지만 전시장을 넉넉하게 채웠다.

내가 이 전시에 진심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작년 연말에 한 달 동안 유럽 미술관 기행을 떠났는데 여행지가 런던이었다. 런던에서도 처음 방문한 미술관이 내셔널갤러리. 열흘 동안 런던에 머물면서 6시간 이상씩 3일을 할애한 곳이다. 한 미술관에서 20시간 이상 보내는 건 현지인들이나 가능한 수치다.

미술사 수업하면서 정리했던 내 머릿속 지식과 현장에서 만나는 작품의 실재를 비교해 가며 한 점 한 점 보물 대하듯 살폈다. 두 번째 이유는 같은 주제로 특강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시 작품들을 둘러보고 작가와 작품 그리고 사조, 시대 상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강의할 계획이었다.

2시간 남짓 전시를 둘러본 후 오래 기억에 남은 작품 몇 점을 글로 남겨본다. 그 후 전시는 두 번 더 갔다. 그리고 한 번을 더 갈 예정이다. 런던 내셔널갤러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작별 인사를 해야 어떻게든 런던 갈 일이 생길 것 같은 희망 때문이다.

### 라파엘로, <가바의 성모(성모자와 세례자 요한)>

미술사로 기억되는 수많은 화가 중 특히 뛰어난 그림 실력을 뽐낸 인물은 라파엘로다. 오죽하면 19세기 초 영국 왕립 미술원 젊은 친구들이 라파엘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라파엘전파’를 만들었을까. 그림 정말 잘 그리는 라파엘로가 특히 빼어난 솜씨를 자랑했던 주제는 성모자 그림이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등장하는 그림. 두 인물에 아이 한 명이 추가되면 십자가를 들고 낙타털 조끼를 입은 세례자 요한이다. ‘성모자와 세례자 요한’ 이렇게 세 명을 주로 그렸다. 전 세계 유명 미술관이 소장한 라파엘로의 ‘성모자와 세례자 요한’만 열 점이 넘는다.

성모마리아 뒤쪽에 또 다른 여인이 추가되면 마리아의 어머니 성안나. 남자 어른이 추가되면 요셉이다. 이렇게 모두가

모여 있는 그림이 ‘성가족’이다. 가우디가 바르셀로나에 설계한 성당 이름이 ‘성가족 성당’이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의 애칭은 <가바의 성모>. 내셔널갤러리가 소장하기 전 이 그림을 소유했던 인물이 가바 Garvaga 남작 조지 캐닝이라 그렇게 부른다. 이 그림의 또 다른 애칭이 있는데 <알도브란디니의 성모>라는 이름이다. 이 그림을 300년이나 소장했던 가문의 이름이다. 알도브란



라파엘로, <알도브란디니의 성모>, 1510

디니 가문은 피렌체 출신의 귀족으로 중세 시대부터 중요한 관직을 지냈고 이 집안의 이폴리토 알도브란디니는 클레멘스 8세 교황이 된다. 그림을 보는 순간 라파엘로의 섬세하고 매끄러운 붓 터치, 그리고 편안하고 자애로운 마리아의 인상으로 마음이 고요해진다. 아기 예수를 가까이 두고 세례자 요한을 챙겨주는 동작이 만들어낸 구도는 오히려 완벽한 삼각형 대칭 구조보다 더 자연스럽다. 금만큼 비싼 울트라 마린 상의와 붉은 원피스에 원색임에도 과하지 않다.



빈센트 반 고흐, <길게 자란 풀과 나비>, 1890



런던 내셔널갤러리 전시실

## 빈센트 반 고흐,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

런던 내셔널갤러리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모으고 오랜 시간 머물게 하는 공간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있다. 이번 전시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온다기에 몇 점 안 되는 내셔널갤러리 소장품 중 어떤 작품이 울지 많이 궁금했다. 전시 작품을 알고 실망했다. 아니 미안했다. 저런 작품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미술관 사진 폴더를 열어보니 해바라기 옆에 있었다. 해바라기에 집중하느라 전혀 관심을 못

준 작품이었고, 사진 한 장 못 찍은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다행히 사진이 몇 장 있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1888년 2월 빈센트 반 고흐는 따뜻한 남프랑스 아를로 떠난다. 기온이 높고 꽃이 만발한 동네가 좋아 파리에 있는 화가 친구들에게 함께 하기를 권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 촌놈, 정신이 오락가락한 빈센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화가는 아무도 없었다. 뜻밖에도 가장 멧쟁이라 생각한 고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동생 테오가 형이 혼자 애쓰는 게 안쓰러워 손을 써놓은 것은 알지 못했다. 고갱은 1888년 10월 23일 내려와 두 달 살다 빈센트와 대판 싸우고 아를을 떠난다.

마음의 병이 더 크게 도진 빈센트는 이듬해 5월 동생과 상의해서 아를 근처 생레미에 있는 생폴 드 모졸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한다. 수용소 같은 그곳에서 1년을 보낸다. 1889년 5월부터 1890년 5월까지. 정신병원에는 관리되지 않은 정원이 있었고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곳이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얀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보이는데 나비다. 아마 그 정신병원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만끽하는 존재일 것이다. 버려진 정원, 관리되지 않은 공간에 아무렇게나 자란 풀들은 화가 자신이 투영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 토마스 로렌스, <찰스 윌리엄 램튼(레드 보이)>

이번 전시 작품 중 가장 사랑받을 거 같은 작품은 찰스 윌리엄 램튼이라는 7살 어린 소년을 그린 작품이다. 일명 <레드 보이>. 사랑받는 이유는? 생김새 때문이다. 잘생겨도 너무 잘생겼다. 하얀 피부에 섬세하게 떨어지는 콧매, 맑은 눈, 그리고 서양 아이 특유의 곱슬머리까지 완벽하다. 그러나 소년은 13살, 어린 나이에 결핵으로 죽고 말았다. 애뜻함까지 더해지면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다. 붉은 벨벳 재질 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어 <레드 보이>다. <레드 보이>

는 1967년 영국 우표에 실린 최초의 그림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작품 옆에 모니터를 나란히 걸어 두었다. 내셔널갤러리에서 만든 영상에 자막을 입혔다. 내셔널갤러리 복원팀장 폴 애크로이드가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복원 작업을 중심으로 친절하게 들려준다. 이번 전시 중간중간에 영상 자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림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자료다.

복원 과정에서 단층 촬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그림은 레드 보이가 아니라 옐로 보이였는데 그림 속 주인공의 아버지 조지 램튼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화가가 붉은색으로 다시 칠했다. 그래서 붉은색 안료 아래에 노란색의 미세한 안료 입자가 남아 있다.



토마스 로렌스, <찰스 윌리엄 램튼의 초상화(레드 보이)>, 1825



토마스 게인즈버러, <블루 보이>, 1770, 헌팅턴미술관, 미국 캘리포니아 산마리노

<레드 보이>보다 더 유명한 <블루 보이>가 있다. 18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인물화가 토마스 게인즈버러가 1770년에 그린 작품이다. 부유한 철물 상인의 아들을 그린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미국의 철도 재벌 헨리 헌팅턴이 소장했고 현재도 그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인상적인 작품 몇 점 소개했다. 작품만 인상적인 게 아니라 공간도, 또 그 공간을 지날 때마다 알 듯 모를 듯 흐르는 음악도 그림과 어울렸다. 중세의 수도원을 옮겨놓은 듯, 아치가 반복되는 공간은 그림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장치다. 한 미술관 소장품의 극히 일부를 가져와 이런 멋진 구성을 해냈다. 그런 미술관을 가진 런던이 부러웠지만 열일 다한 전시팀도 칭찬하고 싶다. 🐾

이정수 미술사 강사

# 변함없이 이어질 이야기를 위하여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

무성한 갈대숲 위로 불그스름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슬바람을 탄 새들이 비행을 시작합니다. 유유한 날갯짓에 길을 내주듯 구름은 흩어지고, 나뭇잎들이 일렁이며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보듬고 떠나는 새들을 배웅합니다.

남겨진 이들은 먼 훗날 새들이 돌아오면 소중한 이들과의 재회가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이별에 슬픔과 서운함은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가라앉은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몸을 주저앉힙니다. 그때 어디선가 가느다란 피리 소리가 들립니다. 무거운 공기를 깨우는 소리가 퍼져 나가자 누군가 금쪽을 튕겨 맑은 소리를 더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듯 피리 곡조가 바뀝니다. 어디선가 조심스런 손장단, 발장단도 합쳐집니다. 힘없이 처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둘 일어서며, 떠난 이와 남은 이 모두를 위한 합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대의 새 모양 상형토기들

마을의 지혜로운 이가 위엄을 갖추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납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삶은 다음 세상에서 계속 이어지니 지나친 슬픔도 과도한 신명도 모두 삼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떠난 이들의 영원한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음악과 춤, 다양한 생명의 형상들로 특별한 동행제를 열자고 말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를 보며 상상해 본 고대 장송 의례입니다. 전시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은 1부 - 영원한 삶을 위한 선물, 상형토기와 2부 - 헤어짐의 이야기, 토우장식토기, 이렇게 2부 구성으로, 신라인과 가야인의 생활상과 내세관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유물들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상형문자’라는 말에는 익숙했지만 상형토기는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본 ‘기마인물형 토기’가 전부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상형토기를 접하며 옛사람들이 의미를 두었던 주변 사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형토기가 옛사람들의 삶을 한눈에 보여주는 훌륭한 입체 기록물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일찍부터 만들어진 새 모양 상형토기는 ‘신령한 새’에 대한 고대인들의 믿음을 내포합니다. 물과 땅, 하늘을 자유롭게 오가는 새는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삼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숫대의 끝에도 조각되어 있듯, 새의 형상물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소망이 하늘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신발과 수레바퀴, 말과 배 모양 토기 등은 일상 풍경의 재현물이자 떠나는 사람을 위한 기원물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상형토기의 구체적 사실성에 그들의 영원을 담아 전합니다.

뿔잔을 올린 수레바퀴 토기에는 영생과 순환을 의미하는 나선무늬 고사리 장식이 있습니다. 고사리 장식과 더불어 동그란 바퀴는 망자의 여정이 순조로울 것을 희망하는 상징입니다. 게다가 이 바퀴는 정말 돌아간다고 하니 실제 수레의 이동성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 모양 토기 역시 말을 타고 멀리 빠르게 이동하는 것, 그리고 영토를 지키고 전쟁에 임하는 일이 고대인들에게 중요했음을 알려줍니다. 특히 말 탄 사람 토기는 기수와 말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뿔잔을 올린 수레바퀴 토기, 국립진주박물관



말 모양 토기, 국립경주박물관



말 모양 토기, 국립경주박물관

당시의 장갑(裝甲) 방식과 말갖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 들여다볼수록 놀라움이 커집니다.

하트 모양 달개가 달린 배 모양 상형토기에는 노 젓는 사공이 앉아 있습니다. 커다란 귀와 뭉툭한 코 등 굵직굵직한 생김새와 성기의 노출은 그가 힘과 생명력으로 가득하다는 걸 말해 주는 듯합니다. 덕분에 배는 거친 물살에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집 모양 상형토기에서는 고대인들의 해학을 느낍니다. 지붕에 자리 잡은 고양이가 기어오르는 쥐들을 내려다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쫓긋 솟은 귀와 버티고 선 앞발에서 살금살금 사다리를 오르는 쥐들의 운명이 예상됩니다. 시골집 풍경을 포착해 흙으로 빚어낸 마음에는 보는 이를 웃음 짓게 하는 낙천성이 담겨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정감과 동세가 넘치는 토우장식토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토우는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모양을 본떠 흙으로 만든 인형'으로, 이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 선사시대 때부터 발견된다고 합니다. 굽다리 접시의 뚜껑이나 긴 목항아리를 장식하고 있는 신라 토우는 대부분이 무덤에서 발견된 켜문거리로 고대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탈을 쓰고 흥에 겨워 역동적인 자세로 춤추는 사람, 악기 연

주에 빠져든 사람, 남근 거석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 사람, 지게 진 남자, 사냥한 멧돼지 다리를 아무지게 동여매 말에 싣고 가는 사냥꾼.... 토우들이 살아나 옛사람들의 삶을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손가락만 한 작은 토우들이 만듦새가 정교하지 않은데도 생생한 매력이 있어 볼수록 좋아졌습니다.

신라인들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토우로 만들었습니다. 장수와 영생을 기원하고 길상과 벽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북이, 불가사리, 물고기, 잉어, 새와 사슴 등을 빚었습니다. 상상의 동물인 용과 귀중한 이동 수단이었던 말, 흔치 않은 동물이었을 표범까지도 모두 토우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동행자들 덕분에 망인의 여정에는 길운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고양이와 쥐가 있는 집 모양 상형토기, 국립중앙박물관



토우장식 긴 목 항아리, 국립경주박물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나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장면을 묘사한 토우에서는 죽음이 생명 탄생과 부활로 이어질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이었던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에서도 불사와 재생의 상징인 뱀을 보았습니다. 그보다 앞선 고대 신라 때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진 뱀을 토우로 제작했다는 점이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는 삶과 주변 사물을 이상적이고 고상하게 표현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불완전한, 그렇지만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가 묘사하는 삶이 더욱 진솔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번 전시는 선반형이 아닌 삼각형 진열장을 사용하고 있어 전면만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 귀한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열장을 스크린처럼 활용해 흥미로운 영상까지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전시'였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촬영하면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체험존에서도 직접 유물 모형을 만져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내 여정에는 어떤 동행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남들은 모를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꺾어가며 슬며시 미소 짓게 됩니다.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전이 전해주는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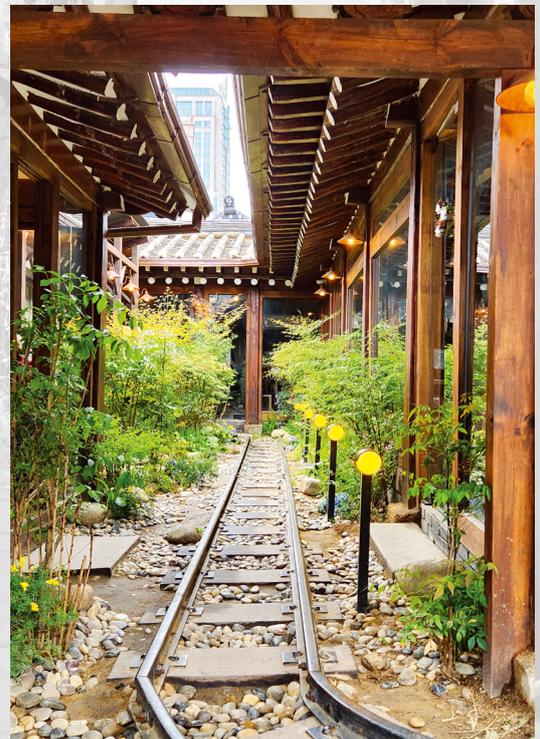
방성아 회원



생동감 있는 토우들



20세기  
의선동에게



현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이 20세기 익선동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1세기 이곳은 지금 다닥다닥 옹기종기 모여 있는 낮은 지붕의 한옥과 현대적인 업종이 결합하여 ‘핫플’로 화려하게 변신해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요? 2010년대 후반부터 복고풍을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 열풍이 불면서, 익선동은 을지로, 홍대 등과 함께 뉴트로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아예 기와지붕만 남기고 내부를 현대식으로 바꾼 이곳은 현대식 가게들과 어우러져 앤티크하면서도 오묘한 조화가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낮은 한옥 지붕과 좁은 골목은 옛 정서를 살리느라 그대로 두었습니다. 당신의 근본 뼈대는 이어가고 싶었겠지요.



상권이 발달하고 이 일대 한옥에서 각종 영화나 드라마, CF 촬영이 이뤄지면서 익선동이 관광 상권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한옥 밀집 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에 현존하는 한옥마을 중에서 익선동은 가장 극단적으로 상업화된 곳이 되었지요. 종로3가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2019년~2020년에는 한국 관광 100선에 올랐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미로처럼 어디로 들어서든 끝과 끝이 이어집니다. 낮은 개량 한옥들은 두 사람 정도 교차할 수 있는 좁은 골목을 끼고 오늘날의 입맛에 맞는 현대식 음식점과 카페, 옷 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멋스럽게 들어서 있습니다.



문득 당신의 옛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익선동이라는 지명은, 1914년 이곳이 한성부 중부 ‘정선방’ 관할의 동리인 ‘익동’이었기 때문에, 익동의 ‘익’과 정선방의 ‘선’을 따서 합성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익선동 166번지 일대는 조선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사저 ‘누동궁’ 자리였다지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가로 활동하던 정세권 선생이 이 부지를 사들여서, 15평 미만 규모의 작은 개량 한옥들을 다닥다닥 지어 서민들에게 분양했다지요. 작은 한옥들이 백여 채 이상 모여 아늑한 마을을 이룬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로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더군요.

골목을 누비다 보면 '익선동 마을 박물관' 소개 글판에 20세기 한복을 입은 여인의 초상을 소개한 글판이 눈에 띄입니다. '봄봄'의 작가 김유정이 짝사랑한 여인 박녹주(1904~1979) 명창이 기거했던 곳이라고요. 현재 '한옥'이라는 이름의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는 판소리를 공연하는 여자 명창들을 비롯하여 많은 예술인이 이 일대에 살았더군요. '팔홍문 집'으로 불린 홍명희의 집을 비롯하여 김억, 박진, 이기영, 이해조 등의 집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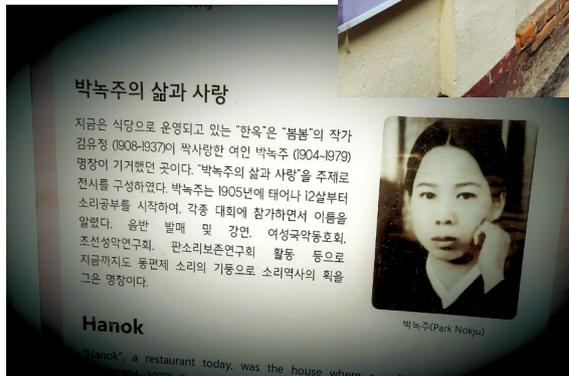
1960년대 유명했던 '오진암'이라는 요정은 1970~1980년대 요정 정치의 산실로 유명했다는군요. 오진암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다가 2010년 폐업하고, 그 자리에 이비스 호텔이 들어섰다고요. 철거된 건물은 부암동으로 옮겨 '무계원'으로 복원했습니다.

박녹주 명창이 기거했던 곳



이비스호텔을 지나 운현궁 쪽으로 걷다 보면 1894년(고종 31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초등학교인 관립 교동소학교(현재 서울 교동초등학교)를 만나게 됩니다. '소학교'라는 이름을 접하니 20세기로 순간 이동을 한 듯 기분이 묘해집니다. '소학교'라는 명칭은 1894년 처음 사용하였는지요. 1906년에 '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38년 다시 '소학교'로 바뀌고 1941년에 '국민학교'로 개칭되었지요. 다시 1996년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20세기에 학교의 명칭이 여러 번 바뀐 것은 일제강점기를 비롯하여 그만큼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시대였기 때문이었겠지요.

이제 익선동 한옥마을은 골목마다 동네 어른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다양





한 외국인과 내국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지면서 아름다움에 취한 탄성 소리가 골목을 메우고 있습니다. 외지인 가게가 많아지면서 이곳 주민들이 밀려나는 안타까운 현실도 들어다보입니다. 글썄요.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맛은 이미 현대의 화려함 속에 묻혀버렸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옛 모습인 개량 한옥의 키 작은 모습의 현대화가 오히려 이색적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높은 현대식 서구의 세련미를 찾던 현대인들은 낮은 건물들의 아기자기함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나 봅니다.

좁은 골목을 덮은 낮은 지붕들이 세상을 관망하듯 낮게 엮드려 현대와 화합하고



이비스호텔이 보이는 골목



서울 교동초등학교(옛 관립 교동소학교)

관립 교동소학교  
官立 校洞小學校  
이 학교는 1894년(고종 31년)  
9월 18일 개교한 한국 최초의  
초등학교임  
1994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관립 교동소학교 표지판

있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금 익선동 한옥골목은 낮은 한옥 지붕과 좁은 골목의 이야기를 지켜가면서 새로움을 추구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부디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비추어보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당신은 지켜보겠지요. 🌍

강현자 회원

정<sup>情</sup>한<sup>恨</sup>의  
백제  
왕도  
扶<sup>扶</sup>餘<sup>餘</sup>

백마강을 끌어안고 부소산 아래 자리한 부여는 백제 왕업 700년 역사 속에서 세 번째로 수도를 옮긴 마지막 도읍이다. 한 나라가 세 번씩 수도를 옮긴 경우는 동서 고금을 통해서도 극히 드문 사례인 만큼 부여는 사연 많은 왕도인 셈이다.

‘부여扶餘’는 무슨 뜻인가. ‘부여’는 단지 한자로 음가를 표기한 것이라서 해석이 불가능하고 아직도 의미를 알 수 없는 고유어이다. 또한, 삼국시대의 성립 이전에 북방의 만주 벌판에 세워졌던 왕국의 이름인데 어찌하여 백제는 그 이름을 끝까지 간직하여 오늘날까지 왕도의 지명으로 남겼는가.

이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먼 옛날 부여 왕실의 서자였던 주몽은 동부여로 내려와 고구려를 세워 시조가 되었고 주몽의 서자 온조 역시 남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웠으니 실로 백제 왕조는 그 조상이 의붓아버지, 의붓할아버지 등 서출로 점철된 모진 세월 끝에 이룬 왕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결코 조상이 ‘부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 같다. 오죽했으면 시조 온조왕은 ‘우리의 조상은 부여’라 하였고 백제 왕가의 성씨 또한 ‘부여’ 씨로 정하였을까. 백제는 한성 도읍기의 500년 동안 왕성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에 밀려 475년 왕도 서울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 나라를 지탱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60여 년간 국력을 가다듬은 백제는 다시 538년에 수도를 ‘사비泗水(부여)’로 옮겨 중흥을 꾀하였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백제 26대 성왕이었다.



백마강과 부소산©김지호, 한국관광공사

백제의 세 번째 왕도 '사비' 도성은 그렇게 등장하였다. '사비'의 원래 이름은 '소부리所夫里'였다. '소부리'는 '소불' 또는 '소밭'이란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이는 '새밭' 즉 신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경주의 '서라벌'과 같은 의미이다. 이러한 지명이 오늘에 변천하여 '서울'이 되었으니 '사비'는 곧 백제의 '서울'인 셈이다.

신도시 '사비'에서의 백제 왕조는 이곳에서 120여 년간 왕업을 일구며 백제 문화의 꽃을 피웠다. 우리 모두가 백제 문화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백제금동대향로', '산수문전', '정림사지 오층석탑', '익산 미륵사지' 등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문



구드래 일원 백마강, © 문화재청

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왕경 역사지구'에서 공주를 제외한 문화유적과 문물은 모두 '사비' 즉 부여백제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부여 왕도의 중흥을 꾀한 성왕은 심지어 국호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꿔버렸다. 지금도 부소산에 올라 시내를 굽어 보면 부여는 어느 지역보다 도시 구획이 질서 정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도시 정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성왕 때 신도시를 건설하며 '방리方里'의 도시계획을 한 것이다. 실제로 부여 궁남지에서는 당시에 쓰이던 목간이 발



부여 관북리 유적 공궐터©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방리의 지명이 먹글씨로 남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궁성 곁의 강변에는 '구드래' 포구를 건설하여 과거보다 훨씬 수월하게 국내외 교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중국의 남조는 물론 북조와도 문물을 교류하고 멀리 왜국과도 활발히 왕래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오늘날까지도 백제를 '구다라'라고 일컫게 된 것도 '구드래' 나루터가 백제의 별칭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왕은 무엇보다도 불교에 진심이었던 국왕이었다. '성왕'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전륜성왕'의 약칭이다. 불교를 통하여



궁남지©유경열, 한국관광공사

백제 문화의 중흥에 힘썼기 때문에 ‘성왕聖王’으로 불리었다. 실제로 백제를 대표하는 승려 ‘겸익謙益’은 성왕 때 활약한 분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에 유학하였고 돌아올 때 국내에 ‘율학’을 처음 소개한 고승이었다.

이후 도성 안팎에는 군수리 절터, 동남리 절터, 외리 절터, 능사, 왕흥사, 정림사 등 다수의 사찰이 세워지고 이곳들을 조사한 결과 백제식의 사찰 공간 구성, 중국풍을 반영한 백제 초기 불상, 백제의 목탑 자리, 영롱하고 섬세한 사리장엄구 등이 확인되었다. 비록 부여 지역은 아니지만 ‘백제의 미소’로 통하는 ‘서산 마애삼존불’, ‘익산 미륵사지’ 등도 부여 백제기에 조영되었고 그 절정은 정림사지 오층석탑으로 꽃을 피웠다.

그러나 성왕의 말년은 너무나 처절하였다. 원래 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맺어 잃어버린 백제의 영토를 되찾는 데 성공했으나 신라의 배신으로 되찾은 땅은 신라가 독차지해버렸다. 이에 격분한 성왕은 세자와 함께 군사를 지휘하여 신라 정벌에 나섰는데 전쟁 중에 고립된 세자를 구하려다 그만 신라 군사에 사로잡혀 생을 마감하였다.



백제금동대향로,  
국립부여박물관 ©e뮤지엄

그 뒤를 이은 위덕왕은 부왕인 성왕의 복수로 다시 신라를 정벌하여 3만 7천 명의 군사를 도륙하고 군마 8천 마리를 노획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 중흥을 위해서 과감한 불사를 단행하였는데 그 결과로 등장한 사찰이 바로 ‘능사陵寺’이다. 이 사찰은 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왕릉을 수호하는 국찰로 조영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부왕인 성왕의 능을 조성한 후 왕가 친족의 명복 기원을 겸하여 거대한 목탑을 세웠는데 이 절터에서 그 유명한 ‘백제금동대향로’와 ‘창왕명석조사리감’이 발견되었다. 이 사리감의 명문에 의하여 위덕왕의 이름이 ‘창ᄃᆞᆫ’이란 것과 능사 목탑의 조성연대가 567년인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발견된 ‘백제금동대향로’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빼어난 조형적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석조사리감’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이다. 현재 부여 인근의 ‘백제문화 재현단지’에는 바로 이 ‘능사’의 탑과 건물들 그리고 사찰 공간이 실제 크기로 추정 복원되어 있어 그 위용을 실감할 수 있다.

그 후 10년이 지난 577년에 위덕왕은 다시 왕도의 동남방에 ‘왕흥사’를 창건하고 여기에도 웅장한 목탑을 세웠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자의 명복 기원을 위하여 세웠지만, 이 목탑과 왕흥사 또한 백제의 위상을 드러내는 대규모 불사였다. 이곳에서는 ‘왕흥사지 출토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는데 청동합, 금은제 사리병 등 수준 높은 조형의 사리장엄구, 각종 유리옥 구슬, 장신구 등 8천여 점의 유물이 동반 출토되었다.



능사 오층목탑 추정복원, 백제문화단지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국립부여박물관 ©국가문화유산포털

이 유물들은 실로 부여 왕도 시기에 이루어진 백제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사리장엄구'는 세련된 조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찰과 목탑 건축의 뛰어난 기량은 백제 무왕武王 대에 이르러 신라에 황룡사 목탑 건축 기술을 전수하기에 이르렀고 백제 공예의 진수인 '사리장엄구' 조형 기량 또한 발전을 거듭하여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에서는 백제 공예의 최첨단 기량을 보여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빼어난 목탑 조영의 기량은 국내 최초로 미륵사에서 석탑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다시 왕도의 부여에서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라는 창조적이고 세련된 백제 석탑으로 완성되었다. 오죽했으면 당나라가 백제를 점령하고 이 오층석탑에 백제를 평정한 위업을 새겼을까. 일제가 경복궁 앞에 총독부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서러운 자취가 아닐 수 없다.

사람에게 운명이 있듯이 국가도 운명이 있는 것인가. 인생으로 말하자면 부여 도읍기의 백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운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운명의 굴곡을 피하지 못한 채 갑자기 요절해버린 비운의 왕조였다. 그러나 '남부여'의 왕도 사비 도성의 이름은 통일신라 때부터 '부여'라는 지명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통일신라가 망한 후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부근에는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등 먼 옛날 백제탑의 향수를 느끼는 석탑들이 세워지고 있었다. 정한의 백제 왕도 부여는 오늘도 속내를 아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가슴을 보여주며 방문객을 말없이 붙들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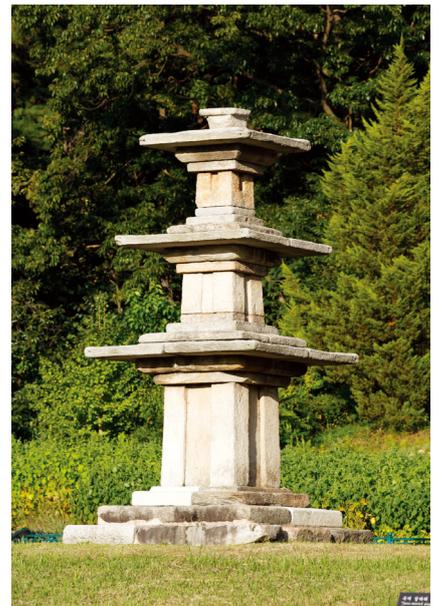
소재구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국립익산박물관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림사지 오층석탑 ©국가문화유산포털



장하리 삼층석탑©문화재청

# 2023년도 제13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고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제13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본 학술상은 박물관의 학술 연구 사업을 장려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된 상입니다.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보존과학, 박물관학(소장품 관리, 교육, 전시 등 포함) 분야에서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1. 응모분야

-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보존과학, 박물관학(소장품 관리, 교육, 전시 등 포함)
  - ※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미술, 민속 등으로 한정
  - ※ 세계문화는 우리문화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다.
- 박물관 기획전 전시도록(전시기획, 디자인, 도판해설, 도록편집 등 포함)
  - ※ 석·박사 학위논문 또는 각종 용역사업의 성과물은 제외

## 2. 응모자격: 등록 박물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학예사 및 직원 또는 부서

## 3. 응모대상: 2023년도 발표 또는 발행된 논문 또는 전시도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등록된 박물관에서 발간한 연속 간행물에 게재된 것
  - ※ 연속 간행물은 공모 마감일 기준, 3년간 3회 이상의 발간 실적이 있을 것
- 2023년도 기획특별전 전시도록
  - ※ 전시기간이 당해연도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응모대상으로 인정함

## 4. 출품수: 1인 1편(전시도록은 박물관 부서명)

## 5. 접수기간: 2024년 2월 1일 ~ 2월 28일까지

## 6. 제출서류: 논문 - 신청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 1부, 논문자료(pdf양식) 1부, 간행물 1건 전시도록 - 신청서(소정양식) 1부, 전시도록 자료(pdf양식) 1부, 간행물 1건

-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전시도록의 경우 필요 시 별도의 서류(박물관 확인증)를 요청할 수 있음

## 7.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gomuseum@hanmail.net
  - ※ 제출 후 수신확인 관련하여 제출자 직접 확인 요망
- 간행물은 우편 및 방문 제출(마감일까지)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내 교육관 101호
-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8. 발표 및 시상: 2024년 5월 중

- ※ 수상자는 국립중앙박물관회 누리집 게재 및 개별 통지

## 9. 수상 및 부상

- 천마상 1명(일천만 원), 금관상 3명(오백만 원), 은관상 5명(삼백만 원), 특별상(전시도록) 2개 기관(삼백만 원)
  - ※ 우수한 성과물 및 적정 범위의 논문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수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10. 참고사항

- 특별상은 단체상으로 기관인 박물관 또는 부서명으로 신청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표절 논문은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11. 문의사항: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 (02-2077-9795)



떡살, 기증문화재실

## 엄마 생각

떡살을 꾸욱 눌러  
소박한 바람을 품었을  
엄마  
백일떡엔 파도 무늬를,  
혼례떡엔 박쥐 무늬를,  
제사떡엔 빗살 무늬를 찍으며  
때론 즐겁고 때론 고단했을  
엄마의 지난 삶이  
떡살에 얹혀  
아련한 그리움을 살 박는다. 🐼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홍종인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환, 이대원, 김상만, 김성진, 정진숙, 김영수, 유상욱, 유창종, 김정태, 신성수 회장을 거쳐 2020년 11월 윤재륜 회장이 취임했다.

**회 장** 윤재륜  
**부 회 장** 박은관 윤석민  
**상임고문** 신성수  
**당 연 직** 윤성용  
**이 사** 김석수 김신한 김현전 남수정 박선정 박선주 박진원 우찬규  
 유승희 이옥경 정용진 조현상 최두준 허용수 홍정욱  
**감 사** 김교태 김재훈  
**사무국장** 이재범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백호회원

삼성전자

허용수  
 홍석조  
 홍정욱

(주)알토 대표이사 사장  
 (주)BGF리테일 회장  
 율가니카 회장

정재봉  
 조영준  
 최정훈  
 최철원  
 한혜주  
 허윤홍  
 홍정혁  
 효 경

사우스케이프 회장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도한강에셋자산운용(주) 대표이사/의장  
 MIGHT&MAIN(주) 사장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GS건설 사장  
 BGF 에코머티리얼즈 사장  
 회원

## 주작회원

김정태  
 윤광자

하나금융그룹  
 회원

## 금관회원

강덕수  
 경 원  
 권준일, 구재선

진 (주)STX 회장  
 극락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 은관회원

강승모  
 강원기  
 김영명  
 김민수  
 김영희  
 김은혜  
 김종한  
 김태훈  
 권재현  
 권택환  
 남태훈  
 류방희  
 박경진  
 박선주  
 박영정  
 박지원  
 백진우  
 서재량  
 성필호  
 송 철  
 신병찬  
 심종현  
 유승희  
 유창종  
 윤현경  
 이우일  
 이상재  
 임지선

KP그룹 부회장  
 오리온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주)예울 이사장  
 (주)삼익악기 스페코 부회장  
 회원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주)종합전기 대표  
 두원중공업 부사장  
 반도건설 부사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국제약품 대표이사  
 (주)풍산주택 회장  
 진주협 대표이사 부사장  
 영은미술관 관장  
 V&S자산운용 상무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주)동성케미칼 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주식회사 유니드 대표이사 부사장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 현무회원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권지혜  
 김남연

아이에스지주 전무  
 (주)동훈 대표이사

## 천마회원

김교태  
 김석수  
 김신한  
 김익환  
 남수정  
 박진원  
 배동현  
 손창근  
 송병준  
 송치형  
 신성수  
 신현철  
 윤석민  
 윤장섭  
 윤재륜  
 이우성  
 이옥경  
 이주성  
 윤 관  
 장선하  
 정용진  
 진재범  
 조현상  
 최신일  
 최두준  
 최태원  
 허용수

삼정회계법인 대표  
 동서식품(주) 회장  
 (주)에이원 사장  
 한세실업(주) 부회장  
 (주)썬앳푸드 사장  
 두산밥캣 부회장  
 창성그룹 부회장  
 소장가  
 컴투스홀딩스·위지웍스튜디오 의장  
 두나무 회장  
 고려산업(주) 회장  
 SK에너지  
 태영그룹 회장  
 전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SGC에너지(주) 사장  
 서울옥션 부회장  
 세아제강 사장  
 BRV Capital Management  
 (주)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신세계그룹 부회장  
 금강공업(주) 사장  
 효성그룹 부회장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주)동남유화 회장  
 (주)SK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김대환  
 김승겸  
 김재훈  
 김지연

(주)동훈 대표이사  
 (주)슈퍼리어·슈퍼리어홀딩스(주) 대표이사 사장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영풍제약 대표이사

김지원  
 김현전  
 도형태

(주)컨셉 대표이사  
 한세엠케이(주) 대표이사  
 히든베이호텔 사장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류지훈  
 박병업

SB Investment 사장  
 팬택써izen아이 대표이사 회장

박선정  
 박영주  
 박용운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아성다이소 부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성래은  
 송영숙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그룹 부회장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대신증권(주) 부회장

양홍석  
 우찬규  
 유상욱

학교재 대표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서울가든호텔 사장

이규식  
 이명희  
 이수경

경신금속(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삼보모터스그룹 사장

이정용  
 이주환  
 이택경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주)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MashupAngels 대표

이종훈  
 장인우  
 최용선

한미약품 사장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주)인팩 대표이사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정은미  
주신흥  
함영준  
홍정도  
홍정인  
홍진기  
현지호  
황정환

블룸앤코 대표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주)오뚜기 회장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메가박스중앙(주) 대표이사  
마리오 아울렛 전무  
(주)화승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주)케이지에프 전무

민경남  
민병철  
민준기  
박범준  
박성경  
박성재  
박재상  
박재연  
박정빈  
박정원  
박주원  
박준영  
박해춘  
박혜성  
방정오  
배윤식  
봉 옥  
서경신  
서동원  
설윤석  
승지수  
손원탁  
신연균  
신영무  
신지연  
신창재  
신춘수  
양인집  
양태희  
어호선  
오경희  
오승민  
오치훈  
유동현  
유영지  
유영현  
윤보현  
윤승현  
윤일영  
윤정신  
이갑재  
이규호  
이기용  
이만규  
이미숙  
이선진  
이승용  
이영순  
이영자  
이용균  
이용진  
이우현  
이운경  
이윤기  
이인수  
이재욱  
이주엽  
이준우  
이지형  
이철우

회원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이사  
렐론스 리(주)민병철교육그룹 파트너변호사  
(주)에이치케이이디 코리아 부사장  
용인대학교 총장  
성호전자 대표이사  
회원  
성곡미술관 이사  
(주)신원 부회장  
회원  
시몬스 에프씨 대표이사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회원  
(주)농심기획 상무  
TV CHOSUN 전무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변호사봉옥법률사무소 변호사  
(주)대명건설 대표이사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동화기업 부회장  
(주)경동인베스트 부회장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회원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오디컴퍼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VTI 파트너스 대표이사  
회원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주)인성 사장  
유급와당박물관 기획실장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대표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코오롱모빌리티 그룹 대표이사 사장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목금토갤러리 관장  
(주)에이티파트너스 사장  
한곡미술협회 회원  
회원  
알스케어 대표이사  
(주)경농 경영총괄 사장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대륙종합건설 상무이사  
홍아해운 부사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롯데쇼핑 총괄사장

이학준  
이해진  
이 혁  
임채현  
장동진  
장선익  
장성진  
장승준  
장우진  
양승화  
양현재단  
전영채  
전윤수  
정영수  
정영해  
정의선  
정재호  
정지이  
정혜인  
조병순  
조연주  
조영미  
조재현  
조희경  
진재욱  
차가원  
차원희  
전석규  
최선목  
최성환  
최세훈  
최원준  
최원영  
최인선  
최재원  
최창화·정혜숙  
최혜옥  
최훈학  
한국도로공사  
한석현  
한승희  
한영재  
허정석  
허진수  
허치홍  
현명관  
호종일  
호창성  
홍범석  
홍석표  
홍원복, 김근호  
홍인관  
홍정국  
홍진석  
황인규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 management 대표이사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NAVER GIO  
회원  
보혜양조(주) 이사  
(주)파워맥스 사장  
동국제강(주) 전무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상무  
매일경제 대표이사 부회장  
대한다업(주) 이사  
(주)DSP홀딩스(주)두성테크 부사장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은산그룹(ES Creators, ES Investor) 대표이사  
회원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무백스 전무  
회원  
성암고서박물관장  
한솔케미칼 부회장  
경동소재 대표이사  
회원  
(주)화요 부사장  
하나유비에스 대표  
(주)피아크건설 대표이사  
차병원 그룹 상무  
천일식품(주) 대표  
(주)조광건설 회장  
SK네트웍스 사장  
(주)카카오/카카오페이 보험NewCo TF장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한영알코비스 파트너/전무  
L Catterton 상무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  
회원·자원봉사  
(주)한국가구 대표이사

SM 엔터테인먼트 DJ/프로듀서  
중앙에너지 전무이사  
노루홀딩스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 파크크라상 사장  
GS리테일 상무  
회원  
호성홍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백미당 사업본부장  
고려제강 사장/전략기획본부장  
회원  
아이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BGF 대표이사 사장  
남양유업(주) 상무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청자회원**

고기영  
구동희  
구본권  
구본상  
구본욱  
구본혁  
구용수  
구원경  
구원희  
구은성  
구형모  
국현영  
김건호  
김경영  
김경희  
김낙승  
김녕자  
김동관  
김동선  
김동준  
김동철  
김두식  
김미원  
김상운  
김성남  
김성완  
김세연  
김연규  
김영무  
김영수  
김영혜  
김유석  
김윤수  
김인순  
김주원  
김재열  
김정주  
김중학  
김지태  
김태현  
김택진  
김현강

(주)금비 부회장  
LS ELECTRIC 대표이사, 부사장  
LS MnM 전무  
LIG 회장  
(주)LK 대표이사 사장  
에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닥터구의원 원장  
(주)에스코홀딩스 과장  
한성플랜지 이사  
LS 네트웍스 이사  
(주)LX MDI 대표이사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주)휴비스 미래전략주관 사장  
회원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PWC-삼일회계법인 상무  
(주)에올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한화 갤러리아/한화 호텔 앤드 리조트 전무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주)서브원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회원  
유리자산운용 부사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EKK Food Group 부사장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화관 관장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주)서라벌 이사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주)NXC 이사  
서양화가  
화성파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성신양회 회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글로벌 대체부문 부문장/전무  
석플란트 치과병원 병원장  
오로라월드 대표이사  
인젠트 전무  
오리온 상무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회원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노 석  
노재연  
남재욱  
담서원  
류중희  
문수희  
문윤희



《강산에 펼친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디지털 실감 영상관 1